

풍뎅이上科의 일부

서론

한국산 풍뎅이류에 관한 학술적인 보고는 1886년에 H. J. Kolbe에 의한 Beitrag zur kenntnis der Coleopteren-Fauna Koreas(Arch. für Naturg., 52(2): 184-196)에 28종이 수록된 것이 처음이다. 28종중 側氣門類는 10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上氣門類인데, 각각의 종류에서 3新種과 1新亞種씩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측기문류중 1신종은 표본의 근거가 불확실하여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며 1아종은 타종과 혼동하였으므로 일종의 誤同定으로 판정할 수 있다. 상기문류중에서도 대부분의 신종들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100여 보고서에서 거의 400에 가까운 이름이 기록되어 왔으나 이중 절반이상은 잘못 보고된 것들로 보여지는데 측기문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상기문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종수를 알 수가 없다. 한편, 사슴벌레과는 다음해인 1887년에 L. v. Bates(Verzeichniss der ... chinischen Halbinsel Korea gesammelten Coleopteren: Horae Soc. ent.Ross., 21: 250-251)에 의하여 5종이 보고되었고 이후 80여 보고서에서 약 30개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많은 同種異名과 오동정이 포함되어 실제적인 한국산은 16종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Scarabaeidae(sensu lato)중에서는 측기문류만을 수록하였고, 사슴벌레과와 사슴벌레부치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아 이들도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총 2群 8科 33屬 124種을 수록하였고 1996년도의 新記載인 1속 1종도 참고로 추가하였다: 사슴벌레科 17종, 사슴벌레붙이 1종, 송장풍뎅이 10종, 바가

지촉각풍뎅이 2종, 금풍뎅이 4종, 소똥구리 34종, 똥풍뎅이 52종, 소똥구리붙이 3종, 붙이

금풍뎅이 2종.

상기의 125종중 韓國固有種은 추가한 신종을 포함하여 4개 과의 11종이었다. 한편, 25종은 南韓에 분포치 않거나 또는 종의 절멸 내지는 일시적으로 출현한 불완전한 종으로서 표본을 확인할 수 없었고, 30여종은 稀貴種으로 분류되며, 대략 10종 정도는 심하게 減少 또는 滅種危機種으로 보이는데, 특히 소똥구리과의 소똥구리는 外國에서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

확인한 100종의 표본중에서 극히 소형인 종이 많아서 70종만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이 중에도 특징을 표현치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촬영된 슬라이드사진의 설명은 목록의 말미에 첨부한다.